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	-----
보고자료	3
-----	-----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3
첨부파일(2)	3
-----	-----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작성일 2021.07.22 13:30

등록자 김예은

조회수 157

보도자료 등록일 2021-07-22

첨부파일(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식-수정.hwp 35 hit/817.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지정서 전달식3.jpg 30 hit/626.9 KB [다운로드](#)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전달받아

군민과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며 농업유산 발굴, 전국 지자체 중 유일 선정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지난 21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수로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제16호)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김현수 장관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고, 그간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이승옥 강진군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군은 2018년과 2019년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근거로 전통문화, 생태환경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농업현장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2013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http://www.gangjin.go.kr>)

강진은 간척지를 제외하고 전남에서 2번째로 넓은 한들평야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산과 하천이 적어 예로부터 물이 귀했다.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인데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선조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투로 쓰지 않도록 방죽과 둠벙을 만들어 물을 저장해왔다.

또 수로를 통해 마을과 읍면 경계가 다른 연방죽의 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강진군에서 제일 높은 수인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위를 깨서 만든 수로인 병영천천에 보를 설치해 가정용수로 활용하고 전라병영성 해자(성 둘레의 못)와 연결해서 군사용으로 활용하고 다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이중, 삼중의 순환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벼농사도 어려웠던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수도작과 마늘, 양파 등 이모작을 정착시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이승욱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합심해서 이룬 국가지정 농업유산 선정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강진농업과 강진연방죽 생태순환 수로의 가치가 후대까지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이승욱 강진군수가 국가농업유산 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목록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